

문학동네
신간안내문

밥 딜런 시선집 (전3권)

1권 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2권 하루 더 많은 아침

3권 불어오는 바람 속에

서대경·황유원 옮김



밥 딜런 2016년 노벨문학상

시로 읽어 당연한 밥 딜런의 명작을
시선집으로 만나다

“노벨문학상은 그의 위대한 시적 재능에 대한 때늦은 인증이다!”
장석주(시인, 문학평론가)

“연필로 밑줄을 그었을 뿐인데 그 선을 따라 숨통이 트인다.
이러면 시지. 그렇지 않겠는가?”
김민정(시인)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이국異國을 지나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가도 끝내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들어온다.”
박준(시인)

영한대역 특별판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 1961-2012』의 보급판 출간 시선집으로 만나는 밥 딜런의 명작들

2016년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노벨문학상 115년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의 이변이었다. ‘문학’의 개념과 용어를 재정의하고, 문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평단과 대중의 인식이 확장되어야 할 시대적 필요를 전면에 대두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사건들과는 비교 불가한 파격이었다.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는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열세 살 때부터 나의 영웅이었던 밥 딜런의 뒤를 이어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학동네’는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의 일생의 작품을 집대성한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 1961-2012』(2016년 12월 22일 발행)를 발빠르게 출간했다. 데뷔 앨범 《밥 딜런Bob Dylan》(1962)에서 《폭풍우Tempest》(2012)까지 31개 정규 앨범에 수록된 작사곡 전편과, 활동 초창기에 썼거나 정규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던 99편까지 포함해 총 387편이 실린 이 책은 독보적으로 구축해온 밥 딜런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작품집이자, 387편 전부를 원문과 함께 실은 영한대역 특별판이었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그가 써온 가사들이 ‘시’이자 ‘문학’으로서 다시 읽히고 새롭게 조명을 받으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밥 딜런 시선집(전3권) 『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하루 더 많은 아침』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독자들이 한층 더 가깝고 편하게 그의 시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획·출간된 보급판이다.

영한대역 특별판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 1961-2012』(2016)이 뮤지션이자 시인인 밥 딜런의 ‘작품 전집’ 성격이라면, 2017년 11월에 펴낸 ‘밥 딜런 시선집’은 책의 물성적 형태와 편집적 구성 면에서 전적으로 ‘시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영한대역 특별판의 1568쪽·2.18kg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 요소를 장벽으로 느꼈던 독자들이 있었다면, 각 권 180쪽 내외인 가벼운 시집 형태에 각기 다른 세 가지 주제로 밥 딜런의 명작을 골라 엮은 ‘밥 딜런 시선집’은 독자들에게 더욱 적은 부담, 더욱 폭넓은 선택권과 재미를 제공한다.

밥 딜런의 삶과 작품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사회비판과 저항정신’ ‘삶의 비애와 계속됨’ ‘반전·평화와 휴머니즘’

‘밥 딜런 시선집’(『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하루 더 많은 아침』 『불어오는 바람 속에』)은 밥 딜런을 온전히 ‘시인’으로 조명하고 그의 작품을 ‘시’로 읽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밥 딜런의 삶과 작품을 대표하는 세 가지 주제(‘사회비판과 저항정신’ ‘삶의 비애와 계속됨’ ‘반전·평화와 휴머니즘’)에 따라 영한대역 특별판 387편 가운데 각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선정해 총 세 권의 시선집으로 엮었다. 작품 선정에는 영한대역 특별판의 공역자 서대경, 황유원 시인과 문학동네 편집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각 권의 주제에 맞춰 총 6편에 달하는 새 ‘옮긴이의 말’을 선보인 서대경, 황유원 시인은 ‘밥 딜런 시론’이라 할 만한 밀도 높은 글을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 밥 딜런의 시 세계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시선집에 실린 작품들을 직접 읽고 추천사를 보내온 시인 장석주, 김민정, 박준의 개성 넘치는 글 역시 밥 딜런의 작품을 처음 시로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안내문이 될 것이다.

밥 딜런 시선집 1권 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사회비판과 저항정신이 빛나는 밥 딜런의 대표작 52편. 널리 알려진 「뉴욕의 불경기」 「시대는 변하고 있다」 「구르는 돌처럼」 「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산주의자 타도’를 주장하는 무리를 풍자한 「존 버치 편집증 토크블루스」, 부유한 백인 남성이 술에 취해 흑인 웨이트리스를 살해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해티 캐럴의 외로운 죽음」,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몬 경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허리케인」 등 미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는 작품들은 현 한국 사회는 물론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만연한 문제적 장면들을 상기시킨다.



루빈 카터는 순 엉터리 재판을 받았어
그가 지은 죄는 ‘1급’ 살인이었지, 누가 증언했는지 알아?
벨로와 브래들리,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신문들이 거기 동참했다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보들 몇몇이서 쥐락펴락할 수 있지?
명백하게 그가 누명을 쓰는 꼴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워졌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곳에서 정의란 그저 장난일 뿐이야
_ 「허리케인」 중에서

다들 그애가 왜 적응을 못했는지 알고 싶어하지
뒤에 적응한단 말이야, 망가진 꿈에?

꽤 말쑥한 아이였지만

그들은 그애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
그게 바로 그들이 한 짓이야

그들은 위를 아래라 하고, 아닌 걸 맞다고 했지
그들은 그애 머릿속에 생각들을 주입시켰고, 그랜 그게 자기 것인 줄
로만 알았지

— 「말썽한 아이」 중에서

“밥 딜런 역시 사회를 노래하고 자유와 정의를 말하지만, 그의 시에는 이른바 ‘인생을 스펀으로 재려는’ 자들의 공허하고 관념적인 언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의 시는 칼날처럼 예리한 통찰력과 미학적 균형감각을 뽐내면서도 또한 거침없이 자유롭고 생생하며 구체적이다.” _서대경

밥 딜런 시선집 2권 하루 더 많은 아침

삶의 비애와 계속됨을 위로하는 밥 딜런의 대표작 56편. 밥 딜런의 내면 풍경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뉴욕 토크블루스」 「밥 딜런의 꿈」 「요해나의 환영들」 「미시시피」 등을 통해 그의 정신의 속살을 느낄 수 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친 자의 묘비명 「오랫동안 떠나 돌아가지 않으리」, 예언자적 목소리를 건지한 사랑 노래 「소박한 D장조 발라드」, 생활고에 시달린 일가족 살해 사건 「홀리스 브라운의 발라드」, 권위 있는 영문학 선집 『노튼 시선집』에 수록된 「스페인산 가죽 부츠」 등을 통해 밥 딜런은 인간의 삶이 그려내는 온갖 욕망과 비애의 무늬를 정직하게 표현한다.

흑과 백을 쉽게 구분했던 것만큼이나
옳고 그름도 아주 손쉽게 구분했었지
우리의 선택지는 몇 개 없었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전혀 없었지
우리가 여행하는 하나의 길이 영영 흩어지고 갈라질 거라고는 말이야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버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박에서 잃고 뺏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그 많은 친구들이 걸었었는지
그리고 난 그 모두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네

— 「밥 딜런의 꿈」 중에서

길이 깨끗이 씻겼다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날씨가
그래, 길이 깨끗이 씻겼다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날씨가
참 우습지, 네가 가장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네게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이라니

— 「외로운 날 블루스」 중에서



“그가 들려주는 가사는 지극히 ‘이야기’ 중심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 점에서 밥 딜런은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다. 때로 그는 가수라기보다 이야기를 노래하는 이야기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지금 이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음반일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이기도 하다. 그것도 여러 의미에서 최고 수준의 오디오북.” _황유원

밥 딜런 시선집 3권 불어오는 바람 속에

평화의 메시지와 휴머니즘을 강하게 표명하는 밥 딜런의 대표작 54편. 가장 유명한 작품들로 알려진 「불어오는 바람 속에」 「전쟁의 귀재들」 「세찬 비가 쏟아질 거예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는 법 대신 죽는 법을 배우는 세상을 향한 비통한 외침 「견다 죽게 해주오」, 방사능 장사꾼·인종차별주의자·전쟁광을 비판하는 「플레이보이와 플레이걸들」, 일상과 생애의 축복을 염원하는 「세 천사」 「영원히 젊기를」, 『노튼 문학 입문집』에 수록된 <미스터 탬버린 맨> 등을 통해 그의 이상주의적 비전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 날 거란 소식, 그리고 이미 벌어진 전쟁
삶의 의미는 바람 속에 흩어지고
어떤 이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대신 죽는 법을 배우고 있네
견다 죽게 해주오
저 땅속에 들기 전에

_ 「견다 죽게 해주오」 중에서

얼마나 자주 위를 올려다봐야
한 인간은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그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한 인간은 사람들 울음소릴 들을 수 있을까?
그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겪어야 한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나의 친구여, 바람 속에 불어오고 있지
대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네

_ 「불어오는 바람 속에」 중에서

“밥 딜런은 나직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언어로, 우리를 생의 비참과 슬픔 앞에, 절박한 물음 앞에 서게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고 얘기한다. 무슨 말일까? 그의 문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_서대경

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본래적 대답을 되찾는 유의미한 사건

밥 딜런의 작품이 문학의 반열에 오른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1970년대부터 영문학계에서는 그의 작품을 텍스트로 하는 학위 논문이 제출되었고, 대학 강의에서 문학 텍스트로 활용되면서 다른 문학가들과 동등하게 거론되고 있다. 스웨덴 학술원 사라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미국 음악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는 노벨문학상위원회의 선정 이유를 공표한 후 인터뷰에서 “전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밥 딜런의 수상은 시의 정의와 영역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본래적 대답을 되찾는 유의미한 사건이었다. 밥 딜런의 수상을 계기로 그의 작품을 시로서 조명하고 감상하는 일에서 시작해 앞으로는 인류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와 문학의 확장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굳이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실린 그의 작품들을 읽어본 이라면 그의 노랫말이 그 자체로 독특하고 빼어난 ‘시’라는 것을 의심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딜런의 시를 그에 맞춘 시집의 형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옮긴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독자로서 반갑고 기쁜 일이다. _서대경(옮긴이의 말중에서)

거침없이 자유로우면서도 놀라울 만큼 정밀한 밥 딜런의 언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까지 획득한 그의 내러티브

밥 딜런은 평면적 해석을 거부하고 끊임없는 언어실험을 통해 독특한 자기 문법을 창조해냈다. 그의 언어가 이룩한 미적 자율성은 미국 현대시의 빼어난 성취라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리드미컬한 감각과 절묘한 각운, 난해한 비유, 생동하는 입말의 매력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가 다른 뮤지션과 차별화되는 지점, 그의 문학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은 바로 뛰어난 내러티브 직조 능력이다.

실제 사건에서 소재를 얻어 가사를 썼던 1960년대의 밥 딜런은 짧은 분량 안에서 완결성 높은 이야기를 구사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며 ‘시대의 목소리’라 불렸고, 그 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 작품을 쓰던 시기에도 비판적·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누가 데이비 무어를 죽였나?」 「해티 캐럴의 외로운 죽음」(밥 딜런 시선집 1권) 등을 보면, 그 사건들이 더는 회자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모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세상은 변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본질을 그는 잘 알았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의 후렴(“그 대답은, 나의 친구여, 바람 속에 불어오고 있지”)처럼 손쉽게 명확한 답을 내어주는 대신 함께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획득했다. 재앙의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 오늘날, 밥 딜런의 작품은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밥 딜런과 그의 작품에 쏟아진 찬사

자, 여기 놀리고 빼앗긴 이의 슬픔과 울분을 담은 시가 있다. 부자는 늘 부자고,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한 양극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인이 있다. 밥 딜런은 노래가 된 시를 쓰고, 혹은 시가 된 노래를 부른다! 광기로 뒤덮인 세상 변두리에는 부랑자, 노동자, 외판원, 무명인, 떠돌이 노름꾼으로 넘쳐난다. 현실이 좋았던 적

은 단 한 번도 없다. 늘 불경기이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며, 슬프고 울적한 기분은 여전하다. 세상은 “커다란 형무소 마당”이고, 우리 중 일부는 “죄수들”이고 나머지는 “교도관들”이다. 밥 딜런은 집 없이 사는 이들의 암담한 기분을 살핀다. “구르는 돌”의 실의와 낙담을 중계하고 성난 목소리를 들려준다. 밥 딜런은 호메로스에서 찰스 부코스키에 이르는 찬란한 시인의 맥을 잇는다. 노벨문학상은 그의 위대한 시적 재능에 대한 때늦은 인증이다!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리드미컬한 방랑자. 이 말의 조합이야말로 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송이 아닐까 하였는데 글썽, 예서 만났다. 그러니까 밥 딜런 얘기다. 세상사 욕심이란 것의 부질없음을 이미 알아버린 채 슬슬슬렁 어디론가 그저 걸어가갈 뿐인 이의 관점에서 절로 새어나오는 노래, 그 목직한 가벼움의 소유자라니! 서대경·황유원 시인의 번역으로 만난 밥 딜런의 시들은 그 어떤 대목에서도 ‘말씀’의 강요가 없다. 다만 ‘자연’처럼 함께 흐르자는 데서 제 목소리의 톤을 살짝 올려볼 뿐이다. 실은 별말 안 한 밥 딜런이다. 그 별말이 실은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우리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팬찮아” “웃는 건 힘들지만, 우는 건 기차 한 번만 타면 돼” 그렇게 “잠시 울어”..... 이 구절들이 뭐라고. 그런데 있지, 연필로 밑줄을 그었을 뿐인데 그 선을 따라 숨통이 트인다. 이러면 시지. 그렇지 않겠는가? **김민정 (시인)**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이국(異國)을 지나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가도 끝내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들어오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소슬하고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란한 것이어서. 그냥 밥 딜런이라고만, 단지 밥 딜런이라고만 부르고 싶은 것인데. **박준 (시인)**

한 사람의 대중음악인이 이토록 강렬하게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는 시집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의 장구한 모든 앨범에 실린 노랫말은 어떤 시보다 시적이다. 밥 딜런이 세상에 내보낸 노래들의 진정한 가치는 음반가계의 진열대가 아니라 시대와 의식의 진열대에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밥 딜런이 대중음악사에 남긴 결정적 공헌은 다름 아닌 ‘언어’다. 그는 무엇보다도 노랫말의 혁명가다. **강현(음악평론가)**

영원한 반전의 상징, 날개 달린 혀의 시인 밥 딜런은 바람과 길의 정치학을 독설 섞인 민중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이다. 시의 영혼은 하나의 매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는 여기저기 떠돈다. 밥 딜런은 ‘영속되는 순간적 이미지’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시의 혀가 풀리는 순간, 노래의 날개가 푸덕거리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 깊이 들어 있는 신화 이전의 보편성이 떠오르고, 그 보편성은 숨김없는 열망을 담아 미래의 시간에 대한 진보적 전망이 된다. 밥 딜런은 바로 그 순간을 붙들어 거칠고 해학적인 민중의 언어로 우리 앞에 펼쳐 보인 20세기 최고의 음유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기완(시인,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판단 유보로 일관했던 것은 ‘시인 밥 딜런’의 전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 덕분에 지금은 안다. 그가 ‘가사도 잘 쓰는 가수’인 것이 아니라 ‘노래도 부르는 시인’이라는 것을. 자전적 술회의 허허로운 울림이나 진보적 발언의 지적 밀도 등은 얼마간 예상했던 미덕이지만, 그가 작품의 건축적 완결성에 얼마나 섬세한지, 시를 한 편의 소설처럼 읽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능한지를 알게 된 것은 뜻밖의 수확이다. 1995년에는 히니를, 1996년에는 쉼보르스카를, 2011년에는 트란스트뢰메르를 읽었듯이, 나는 지금 밥 딜런을 읽는다. **신형철(문학평론가)**

음악이나 대중문화와의 접점을 넓히고 욕성으로서의 리듬을 중시하는 딜런의 노랫말은 소수의 지식인들, 특히 시작법을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에게만 허가되던 협소한 방법론으로의 시의 벽을 무너뜨리고 문학의 장을 확장한다. 자신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통제하던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위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대면했던 타협 없는 감수성의 언어가 딜런의 노랫말이라면, 이 노랫말을 시라고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쟁과 경제 위기, 난민 등 전 세계적 재앙의 국면이 다시금 불어닥친 21세기에 ‘문학의 자리’를 되찾는 질문이며, 시가 눈으로만 읽는 활자가 아니라 소리를 가진 거리의 노래라는 점을 재확인시키는 사건이다. **정은귀(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밥 딜런은 어마어마한 양의 곡을 써내려갔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증거다.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요절해버린 이 로큰롤 왕국에서 그는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온 록의 레전드다. 그의 예술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고리타분한 틀에서 벗어나 그 짓곳은 유머 감각에 몸을 맡겨야 한다. 마음을 열고 이 책을 넘기다보면 그대는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리. 로큰롤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한때 로버트 지머먼이라 불리던 사나이, 시인 밥 딜런이여 영원하라. **한대수(가수)**

열세 살 때부터 나의 영웅이었던 밥 딜런의 뒤를 이어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 그는 어찌면 나의 가장 큰 영웅이다. **가즈오 이시구로**

밥 딜런의 가사는 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의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살만 루슈디**

밥 딜런의 가사를 문학으로 보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이스 캐롤 오츠**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밥 딜런은 음악에 신화적 힘을 남겼고, 그의 걸걸한 목소리와 시적인 가사는 삶에 내재한 거대한 비극에 아름다움을 가져왔다. **가디언**

노벨문학상은 밥 딜런이 싱어송라이터 그 이상의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밥 딜런은 이제 신전에 올랐다. 음악에서 수많은 경계를 밀어냈듯이 ‘문학’의 정의라는 경계를 힘차게 밀어내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 밥 딜런 Bob Dylan

1941년 5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딜루스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먼 Robert Allen Zimmerman. 시인 딜런 토머스의 이름을 따서 개명했다. 1962년 앨범 《밥 딜런》으로 데뷔했다. 2016년 ‘미국 음악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60's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를 든 저항과 젊음의 상징

포크 음악에 빠져 대학 중퇴 후 가수의 꿈을 품고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에 정착한다. 그곳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한편, 잭 케루악, T. S. 엘리엇,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의 영향 아래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한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를 비롯해 직접 쓴 저항의 시를 거친 목소리로 뱉어내는 모습이 미국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다. 60년대 중반, 저항가수라는 칭호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구속한다고 느껴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인다. 이후 포크록이라는 새 페르소나로 무장하고 또다른 경계를 넘는다.

1970's 상업적 성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음악적 변모

영화감독 샘 페킨파와 계약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를 탄생시킨다. 1974년 1월에 발표한 앨범 《플래닛 웨이크스》가 연말까지 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듬해에는 은둔하며 작업했던 곡들을 집대성한 《비정규 앨범》을 정식 발매한다.

1980's 엇갈리는 평단의 반응 속에 ‘네버 엔딩 투어’ 시작

자신의 음악적 뿌리였던 포크와 블루스로 돌아간다. 1988년 ‘더 그레이트풀 데드’와 공연하며 영감을 얻어 끝나지 않는 공연 프로젝트인 ‘네버 엔딩 투어’를 시작한다. 투어는 향후 20년간 2500회가 넘는 공연 기록을 세운다.

1990~2000's 거장에게 쏠아지는 수상의 영광들

평단과 대중의 평가를 초월해 쉽 없이 앨범을 발표하며 존재 자체로 전설이 된다. 약 60년간 발표한 앨범들은

1억 장 이상 팔렸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무수한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각 부문을 통틀어 그래미상 열 세 차례,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로큰롤 명예의전당 전설상, 풀리처상 등 을 받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센터 명예 훈장’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2016년 “귀 로 읽는 시(詩)”라는 찬사와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윤킨이 서대경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시와세계』로 등단해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로 제20회 김준성문학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 『등에』 『창세기 비밀』 등이 있다.

윤킨이 황유원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로 제34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 밥 딜런 그림책 『그 이름 누가 다 지어 줬을까』 『불어오는 바람 속에』가 있다.

밥 딜런 시선집 1 다시 찾은 61번 고속도로

역자 | 서대경, 황유원

분야 | 영미문학

판형 | 130*225 무선

쪽수 | 180쪽

가격 | 10,000원

발행일 | 2017년 11월 13일

ISBN | 978-89-546-4876-9 04840 / 978-89-546-4875-2 04840 (세트)

밥 딜런 시선집 2 하루 더 많은 아침

역자 | 서대경, 황유원

분야 | 영미문학

판형 | 130*225 무선

쪽수 | 172쪽

가격 | 10,000원

발행일 | 2017년 11월 13일

ISBN | 978-89-546-4877-6 04840

밥 딜런 시선집 3 불어오는 바람 속에

역자 | 서대경, 황유원

분야 | 영미문학

판형 | 130*225 무선

쪽수 | 180쪽

가격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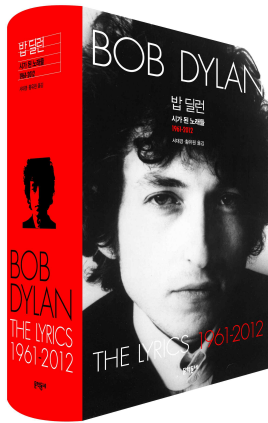
발행일 | 2017년 11월 13일

ISBN | 978-89-546-4878-3 04840

담당자: 고선향 (문학동네 해외문학1팀) 031-955-1910 | 010-5516-9993 | shko86@munhak.com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 1961-2012

영한대역 특별판(양장) | 서대경·황유원 옮김 | 2016년 12월 22일 발행



2016년 노벨문학상이 가수 밥 딜런에게 돌아갔다. 음악이라는 분야 안에서 뛰어난 문학성을 실현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사상 최초로 음악가에게 상이 수여됐다. 그의 작품을 집대성한 이 책에는 데뷔 앨범 《밥 딜런Bob Dylan》(1962)에서 《폭풍우Tempest》(2012)까지 31개 정규 앨범에 수록된 작사곡 전곡과, 활동 초창기에 썼거나 정규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던 99곡까지 포함해 총 387곡이 실려 있다. 독보적으로 구축해온 밥 딜런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작품집이다.

타란툴라

공진호 옮김 | 2016년 12월 22일 발행



25세의 청년 밥 딜런을 만나다
음악계의 전설 밥 딜런이 쓴 단 하나의 픽션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인 시적 산문과 가사의 조합

초판 출간 당시 “윌리엄 버로스의 『벌거벗은 점심』과 유일하게 비견할 만한 책”(뉴욕타임스)이라 평가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타란툴라』는 밥 딜런의 첫 ‘문학 작품’이자 유일한 픽션이다. 시적 산문과 노랫말이 조합된 이 실험적 소설은 그의 머릿속 생각을 여과 없이 옮겨놓은 상상의 보고이자 수많은 페르소나의 각축장이며, 베트남 전쟁과 인권운동, 창조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환상을 보는 초현실주의적 서사시의 콜라주다. 시기적으로는 그의 포크록 3부작을 탄생시킨 작업 시기와 집필 시기가 겹쳐, 밥 딜런 명곡들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의 ‘창작 과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책이 될 것이다.